

■ 광주 H수련원 엽기적 사건 진실은?

운영권을 노린 살인 교사인가 다른 사건 덮기 위한 조작인가

회원들이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모의한 살인 교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 조작한 것인가?

‘광주 H수련회 원장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이 지난 5월에 발생한 ‘H수련회원 살인 미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H수련회원 H(47)씨는 지난 5

이 자술서에는 “H수련회 살인 미수사건은 H씨와 J씨, P씨 등이 모두 짜고 H수련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J씨 주도 하에 벌인 일이다. 이 과정에서 회원 이탈과 포섭 목적으로 회원 간 집단 성관계를 강요했고, L원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H씨는 광주지법에서 “J씨 등 11명과 공모해 벌인 일이 아니라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J씨 등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한

시 북구 용봉동 H수련원에서 청산가리와 양잿물을 탄 커피를 건네고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등 최근까지 23회에 걸쳐 L원장을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H수련원에서 황정신 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1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시고, 2007년 6월 10일께 현금함에 현금 1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모두 18억5천만원을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복역 중인 H씨가 재판과정에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해 사건 관련자들이 또 다른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들이 L원장을 상대로 23차례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과 L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뒤늦게 고소한 점, L원장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상태인 점 등이 이런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H수련회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유사 단체인 M수련회원인 J씨 등 12명이 H수련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위장 잠입해 벌인 일이다. 이들은 H수련회원이 아닌 M수련회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의사·공무원 등이 대거 포함된 이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서 등에 진상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형기자 golee@kwangju.co.kr



강제 연행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18일 오후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전 총리.

/연합뉴스

한명숙 前 총리 체포

검찰, 5만달러 의혹 조사...묵비권 행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전직 총리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적은 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되기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께 서울 삼성동 총리 공관에서 광역육(69·구속기소) 전 대한민국 사장에 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앙지검에 도착해 김주현 3차장검사, 권오성 특수2부장검사와 함께 11층 특수2부장실에서 차를 마신 뒤 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권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검사 1명이 동석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실제

로 광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진술 태도에 대해 “아직까지 말씀을 잘 안하시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잘 안하시는데’는 것 같다”며 한 전 총리가 당초 밝힌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가져온 체포영장에 기재된 핵심 혐의 내용은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는 로비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광씨가 한 전 총리에게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뒤 비록 석탄공사 사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듬해 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만큼 광씨의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수사진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로 보내 낮 12시44분께 체포영장을 집행, 재단 사무실에 있던 한 전 총리를 중앙지검 청사로 연행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 대유행 아직은 안 끝났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 후쿠다 게이 지 사무차장은 17일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대유행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확산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후쿠다 사무차장은 비록 북반구 일부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정점에 도달했고, 남반구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옮겨갈 늦게 또 한 차례 확산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25일 눈 예보

광주·전남 휴일까지 강추위 동반 폭설

휴일까지 강추위를 동반한 눈이 이어지다가 21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9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영광과 함평, 목포 등 서해안 지역은 3~8cm, 그 밖의 지역은

1~5cm. 기상청은 전날 오후를 기해 영광에 대설 경보를, 함평과 목포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는 대설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이 이날 발표한 주간(19~25일)예보에는 성탄절인 25일 광주·전남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7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릴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성탄절 이후 광주에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 적이 한차례도 없었다.

주간 예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었으며, 성탄절인 25일에는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25일 광주의 기온은 4~7도로 예상돼 경우에 따라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김홍빈 대장 칼라파타르 오른다 ▶3면

겨울 부츠 밟쟁이 ▶4면

새해 설계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양현종 “나도 역대 연봉” ▶14면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걸어온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ji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크기, 병후·복후의 회복, 체력, 체력,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편하, 야맹증
- 햇빛 피부를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른 중추신경의 회복, 허혈, 뇌경색, 수족저혈관질환

아연의 보급